A Band United by a Name

My name is Lee Saem. My first name has an impressive meaning in Korean: "a source of power and vitality."

Since Saem sounds like Sam, I decided to make that my English name.

Growing up, I thought Lee was a common last name only in Korea.

Little did I know that it's actually common in many other countries, too.

When I searched "Sam Lee" on a social media website, I was amazed at what I saw.

There were so many people all over the world with that name!

Just for fun, I randomly chose several Sam Lees and sent them friend requests.

An Unexpected Connection

A lot of them accepted my friend request.

While looking through their profiles, I noticed something interesting.

Several Sam Lees of various ages and nationalities were interested in music.

내 이름은 이샘이다. 내 이름은 한국어로 '힘과 생명력의 원천'이라는 인상적인 뜻을 가진다.

샘은 Sam과 비슷하게 들리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내 영어 이름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자라면서, 나는 Lee가 한국에서만 흔한 성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것이 실제로 여러 다른 국가들에 서도 흔하다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다.

내가 소셜미디어 웹사이트에서 'Sam Lee' 를 검색해봤을 때, 나는 내가 본 것에 깜 짝 놀랐다.

전 세계에 그 이름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단순히 재미로, 나는 몇 명의 Sam Lee들을 무작위로 선택해 그들에게 친구 요청을 보냈다.

예기치 않은 연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내 친구 요청을 수락했다.

그들의 프로필을 살펴보는 동안에, 나는 흥미로운 무언가를 알게 되었다.

다양한 나이와 국적의 Sam Lee들 중 몇 몇이 음악에 관심이 있었다.

There was a Sam Lee in his mid-30s from Singapore who enjoyed singing and writing lyrics.

And there was a 42-year-old Canadian Sam Lee who was a drummer.

According to her profile, everyone called her Sam even though her real name was Samantha.

Finally, there was an American Sam Lee who played the electric guitar.

Suddenly, I had a great idea. I sent a message to all three.

Here is what I wrote: "Hi! I'm Sam Lee from Korea. I write songs and play the keyboard. How about making a virtual band called The Sam Lees?"

To my surprise, all three eagerly agreed.

That was the start of our band's journey.

The Virtual Music Factory

We tried to practice once a week through a video chat app, but we encountered several problems.

First of all, we all lived in different time zones.

This made it difficult to pick a convenient time for everyone to practice.

Secondly, there were audio issues with the app, which caused us to be out of sync.

노래하는 것과 가사 쓰는 것을 즐기는, 싱가포르에서 온 30대 중반의 Sam Lee가 있었다.

그리고 드럼 연주자인 42살의 캐나다인 Sam Lee도 있었다.

그녀의 프로필에 따르면, 그녀의 진짜 이름이 Samantha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그녀를 Sam이라 불렀다.

마지막으로, 전기기타를 연주하는 미국인 Sam Lee가 있었다.

문득, 나는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세 명 모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Sam Lee입니다. 저는 곡을 쓰고 키보드를 연주합니다. The Sam Lees라고 불리는 가상의 밴드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놀랍게도, 세 명 모두 열렬히 동의했다.

그것이 우리 밴드 여정의 시작이었다.

가상의 음악 공장

우리는 한 주에 한 번씩 영상 채팅 앱을 통해 연습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우리는 몇 가지 문제들에 부딪혔다.

우선, 우리는 모두 다른 시간대에 살고 있었다.

이것은 모두가 연습하기에 편한 시간을 고르는 것을 어렵게 했다.

두 번째로, 앱에 오디오 문제가 있었고, 이는 우리가 동시에 연주할 수 없게 했 다.

So we put our heads together and devised a better way of playing music.

We decided to assemble the songs as if we were working in a virtual music factory.

After we decided on a song, I would play it on my keyboard and send it to Singaporean Sam.

He would sing along with the keyboard and send the recording to American Sam.

Then American Sam would add his guitar part, and Samantha would finish the song with her drumming.

When it came to choosing songs to play, we took turns.

Since each of us prefers a different genre of music and comes from a different culture, we all ended up learning a lot about different kinds of music.

It was interesting and a lot of fun.

"Long-Distance Friendship"

Shortly after we started the band, a global pandemic began.

Since all of our normal lives were put on hold, we valued our online interactions more than ever.

At one point, Singaporean Sam became ill and needed to spend some time in the hospital, so the band took a break.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음악을 연 주하는 더 나은 방법을 고안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가상의 음악 공장에 서 작업하는 것처럼 노래를 조합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노래를 결정한 후에, 나는 그것을 내 키보드로 연주하고 그것을 싱가포르의 Sam에게 보냈다.

그는 키보드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미국 인 Sam에게 녹음한 것을 보냈다.

그런 다음 미국인 Sam은 그의 기타 파트를 추가했고, Samantha는 그녀의 드럼 연주로 노래를 완성했다.

연주할 곡을 고르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번갈아 가며 했다.

우리 각자는 다른 음악 장르를 선호하고 다른 문화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른 종류의 음악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 게 되었다.

그것은 흥미롭고 아주 재미있었다.

장거리 우정

우리가 밴드를 시작한 직후, 전 세계적인 유행병이 시작되었다.

우리 모두의 평범한 삶이 보류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온라인 소통을 여느때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

한때는, 싱가포르 Sam이 아프게 되어 병 원에서 시간을 좀 보내야 해서, 밴드는 휴식을 취했다.

However, we still met from time to time by using the video chat app.

We talked about our lives and did what we could do to cheer Singaporean Sam up.

Since he had to stay in the hospital on his birthday, the rest of us recorded his favorite song as his birthday present.

When we played it for him, he laughed so hard that he cried.

That was mainly because the song was sung by the worst singer in the band—me!

It was good to see him laugh even though he was lying in his hospital bed.

After Singaporean Sam recovered, we decided to write and record our own song.

We called the song "Long-Distance Friendship," and we posted it online.

The song didn't get much attention, but we were proud of what we had achieved together.

Our band is something really special.

Never did we expect that we would build such strong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After all, we don't come from similar backgrounds, nor have we had the same life experiences.

Yet we now talk about almost everything together, including the hardships we face in life.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영상 채팅 앱을 사용하여 가끔씩 만났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고 싱 가포르 Sam을 격려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그가 그의 생일에 병원에 머물러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는 그의 생일 선물로 그가 매우 좋아하는 노래를 녹음했다.

우리가 그를 위해 그것을 연주했을 때, 그는 너무 웃어서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주로 그 노래가 밴드에서 가장 노 래를 못 부르는 사람인 나에 의해 불렸기 때문이었다.

그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그가 웃는 것을 보는 것은 좋았다.

싱가포르 Sam이 회복된 후, 우리는 우리 만의 곡을 쓰고 녹음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그 노래를 '장거리 우정'이라고 불 렀고, 온라인에 그것을 게시했다.

그 노래는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우리가 함께 이룬 것에 자랑스러 웠다.

우리 밴드는 정말 특별한 것이다.

우리는 서로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어쨌든, 우리는 비슷한 배경을 가진 것도 아니고, 같은 인생 경험을 한 것도 아니 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삶에서 마주 하는 어려움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것에 대해 함께 이야기한다.

I think it's been really valuable to get advice from people with such different perspectives.

We would all like to meet in person and play our music on the street someday.

But even if that never happens, we've still been incredibly lucky.

Four random people became great friends simply because of our names.

Life can be amazing sometimes!

나는 이렇게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로 부터 조언을 얻는 것이 정말 소중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직접 만나서 길거리에서 우리의 음악을 연주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운이좋았다.

네 명의 무작위의 사람들은 그저 우리의 이름 때문에 좋은 친구가 되었다.

삶은 때때로 놀라울 수 있다!

미래엔(김성연) 4과 본문

a Mushroom